

광양 백운산서 희귀 식물 다수 발견

전남 산림연구소·전남대 조사
광릉요강꽃·나도승마 등 발견

광양 백운산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인 '광릉요강꽃'(멸종위기식물 I급) 등 희귀식물이 발견됐다.

전남도 산림자연연구소는 "전남대와 함께 광양 백운산 지역에서 산림조사를 실시, '광릉요강꽃'과 '나도승마'·'세뿔투구꽃'(멸종위기식물 II급) 등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광릉요강꽃'은 경기도 광릉 정상 부근에서 자라는 난초과의 다년초다. 큰 잎으로 외줄기를 감싸며 주머니 같은 꽃이 달리는 식물로 남부지방에서 발견된 것은 매우 특이한 경우다. 해발 500m 지점의 북쪽 사면 25도 급경사지의 암반지역에서 발견됐다.

또 산림청에서 지정된 희귀·특산식물인 '남방바람꽃' 등 9종의 서식과 생태 환경을 확인했으며, 살충제와 약재로 쓰이는 '박새' 군락지와 뿌리를 약재로 사용하는 '매미꽃' 군락지를 확인했다.

매미꽃의 경우 잎이 세열(細裂)로 갈라지는 변이 개체가 군락지 내에 분포하는 것을 발견해 새로운 개체인지 또는 변이개



광릉요강꽃(멸종위기식물 I급)



나도승마(멸종위기식물 II급)



세뿔투구꽃(멸종위기식물 II급)

체에지를 보다 정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전남지역 산림자연 연구 활성화를 위해 2013년부터 전남대와 공동으로 '산림자원 조사단'을 구성해 시범 운영하다 올해부터 5개년 계획으로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올해는 광양 백운산과 고흥 거금도 일대

에 대해 봄, 가을별로 총 4회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에는 광양 백운산 일대를 대상으로 희귀식물 및 식·약용자원에 대한 생태환경 및 집단 서식지 등을 서울대 남부학술립의 협조를 받아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단순 조사로 그치지 않고 희귀·멸종 위기식물에 대해 개체증식 후

서식지 내에 복원할 계획이다.

또, 기능성 분석용으로 수집한 36종에 대해서는 채취 부위별 기능성 물질을 추출해 연구소에서 운영 중인 '산림자원 추출물 은행'에 보관하고 향후 새로운 기능성 효과를 가진 식·의·약 자원의 소재 개발 자료로 활용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북 소식

정읍 '씨까지 먹는 수박' 첫 출하

꽃가루 활용 새 재배기술
식감 좋고 당도 높아 '인기'



'씨까지 통째로 먹는 수박'이 정읍에서 본격적으로 생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정읍시 농업기술센터와 정읍시 수박연구회는 "새로운 수박재배 기술인 'SWT'(수박 꽃가루를 활용한 씨 없는 수박생산=Seedless watermelon technology)를 이용해 '씨까지 통째로 먹는 수박'을 최근 첫 출하했다"고 밝혔다.

기술센터와 연구회는 지난 2012년부터 농가 실증시험 재배를 통해 쌓아온 기술과 정보를 바탕으로 수박농가를 지도한 끝에 올해 9농가(4ha)를 대상으로 '씨까지 통째로 먹는 수박'을 시범 재배했다. 올해 SWT를 이용해 일반수박에 수정한 결과 90% 이상 수정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씨까지 통째로 먹는 수박'은 식감이

좋을 뿐만 아니라 당도도 12브릭스(Brix=당도단위) 이상을 웃돌아 일반 수박에 비해 품질이 뛰어나다.

정읍 원예농협 관계자는 "'씨까지 통째로 먹는 수박'은 전라 대도시의 대형 마트와 사전 계약된 인기상품"이라며 "일반 수박재배농가보다 소득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읍시 수박연구회 이석번 회장은 "처음 접하는 기술이라 수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으나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도와 교육으로 순조롭게 고품질 수박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순창군, 저소득층 거주지 환경 개선

53세대 집수리에 1억 지원

순창군이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순창 지역지활센터에 위탁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운대 본인소유 주택 또는 전세 무료임차 거주자들에게 구조안전, 화재위험, 거주자 건강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선정해 도배와 장판, 보일러, 지붕, 화장실, 싱크대 등의 수리비를 지원한다.

군은 올해 총 53세대에 1억1000만원(세대당 220만원 이내)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중에서 현재 20세대의 집수리는 완료(40%)된 상태이고, 나머지 33세대는 빠른 시일내에 완료할 예정이다.

순창군 관계자는 "해마다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면서 "올해도 집수리 사업을 비롯해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남원시 28일 명인·명창 국악콘서트

국내 최고의 명인·명창이 참여하는 국악 콘서트가 28일 오후 7시 남원시 공설시장에서 열린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과 국악방송 주최로 열리는 이번 국악 콘서트에는 안숙선 명창을 비롯해 김일구 명인, 강은경 가야금 명창, 퓨전 타악그룹 진명, 버리 국악단, 라온누리 등이 참가하며 사

회는 국악인 박애리 씨가 맡는다. 부대 행사로 4개 단체 19개 업체가 참여하는 지역 농·특산물 기획전이 마련돼 지역의 우수 상품을 만나볼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공연은 국악방송 온라인TV(gugakfm.co.kr)를 통해 생중계되며 케이블방송(소상공인 YES TV)을 통해 재방영된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전남개발공사 운영 경도리조트 등 4개 숙박시설

음이온 많고 미세먼지 적어 공기 '쾌적'

전남 보건환경연구원 조사

경도 리조트 등 전남개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숙박시설 4곳 모두 공기질이 매우 쾌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개발공사(사장 전승현)는 25일 "전남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난 3월부터 2개월 동안 경도리조트, 오동재 한옥호텔, 영산재 한옥호텔, 해남명갈 호텔을 대상으로 공기질을 조사한 결과, 공기의 비타민으로 알려진 산소음이온은 많고 인체에 유해한 부유 세균과 미세먼지의 함량은 적어 보건환경적인 측면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황사가 잦은 최근 조사에도 불구하고 인체에 유해한 미세먼지는 m당 경도리조트 17.7㎍, 오동재 19.5㎍, 영산

재 21.4㎍, 해남명갈 15.3㎍로 모두 환경기준치 '100㎍/㎡ 이하' 보다 크게 낮은 수치를 보였다. 또 m당 부유세균도 환경기준치(800CFU 이하)에 크게 못 미치는 각각 32, 27, 35, 28CFU로 나타났다.

반면, 건강에 좋은 산소 음이온은 1463~1604개/cc로 환경기준(100~200개/cc)을 월등히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개발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는 환경적인 요인도 작용했지만, 설계부터 시공까지 친환경 자재와 공법을 적용한 것에도 기인한 것으로 공사에서는 숙박시설을 찾는 고객들이 단순한 휴식 차원을 넘어 치유의 공간으로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보성소방서 보성 119 안전센터(센터장 문승국)는 최근 보성경찰서에서 공공기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별교=김윤성기자 kim0686@

보성소방서 공공기관 합동 소방훈련

보성소방서(서장 박병주) 보성 119 안전센터는 최근 보성경찰서에서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여해 공공기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보성경찰서 본관 3층 전·의경 내부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이번 훈련은 화재발생시 자위소방대의 신속한 초기 소화능력과 대응능력을 배양

하기 위해 화재 초기 상황전파와 119신고, 인명대피 및 인명구조, 화재진압 등 위주로 이뤄졌다.

문승국 보성 119 안전센터장은 "실제 상황에서 신속한 현장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평상시 유관 기관간의 공조체제를 확립하고, 내실있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별교=김윤성기자 kim0686@

NEW

그린알로에 "그린퍼맨 프로바이오-50" 출시!

살아있는 유산균 50억 CFU 프로바이오틱스로 장건강을 챙기세요.

프로바이오틱스로 지키는 장 건강

"그린퍼맨프로바이오-50"은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5종의 프로바이오틱스가 함유된 제품입니다. 부원료로 곡류혼합효소 발효분말 과일혼합효소발효분말 비타민C, 건조효모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린알로에는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합성보존료, 합성감미료, 합성착향료가 함유되지 않은 3무제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고객센터 080-234-6588